

2022 VOL. 9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 목 차 |

01

특별기고

다시 배움에 닿음, 펼쳐질 새로운 다음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황은희 소장」	6
아름다운 황혼의 청춘을 위하여 「순천연향중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이만형 교장」	8
만학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 「동래고등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신창훈 교장」	10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3
「순천연향중」 다채로운 순천연향중학교의 출석수업 • 채송화 기자	13
「광주북성중」 밥 먹고 합시다 • 최지숙 기자	15
「대전봉명중」 마음을 담은 선물 • 박유화 기자	17
「광명중」 등교를 한 후에 • 김판심 기자	18
「남춘천중」 우리들의 첫 체험학습 • 심예린 기자	20
「춘천여고」 꽃보다 예쁜 학우들과의 행복한 체험학습 • 최공주 기자	22
「제주제일고」 전 임원 비양도 환경 정화활동 • 이정희 기자	24
「제주제일중」 하늘에서 날아온 섬 비양도 • 조순오 기자	26
「전남여고」 전남여고 뜻 모아 한마당 구경 오세요! • 김순례 기자	28

02

꿈이 영그는 현장

고마운 우리 학교 임원진	31
「경기여고」 경기여자고등학교 회장단 선발의 날 • 김이순 기자	31
「제물포고」 제물포고등학교 임원진 선발의 날 • 정윤희 기자	33
「천안중앙고」 반짝반짝 빛나는 천안중앙고등학교 총학생회 • 김진옥 기자	34
「춘천고」 행복한 2학기를 위하여 '춘천고등학교 임원회의' • 최동순 기자	35
졸업사진을 찍어요!	37
「주성중」 졸업 앨범사진 • 유정숙 기자	37
「강릉중」 졸업 앨범사진 촬영하는 날 • 김이안 기자	39
「천안중앙고」 22학번 졸업사진 • 김진옥 기자	4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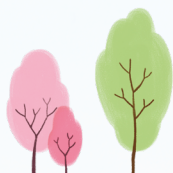
방송중·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44
「순천연향중」 문예(시) 여름밤 • 정재심 학생	44
「광주북성중」 문예(수필) 이층에서 바라본 거리 • 최지숙 학생	45
「진주중」 서예(한글) • 이상철 학생	47
「순천연향중」 서예(한문) • 위경숙 학생	48
「강릉중」 회화(수채화) • 박소희 학생	49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50
「구미고」 문예(시) 여름밤 • 신용순 학생	50
「목포고」 문예(수필) 이층에서 바라본 거리 • 정옥님 학생	51
「안동고」 서예(한글) • 홍숙락 학생	53
「강릉제일고」 서예(한문) • 김춘옥 학생	54
「경남여고」 회화(수채화) • 박소윤 학생	55
「포항고」 회화(소묘) • 김정화 학생	56
「제주제일고」 캘리그래피 • 김신홍 학생	57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59
「원주고」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부부 인터뷰 • 박상숙 기자	59
「춘천고」 강원도대표 골퍼 박그린 학우와의 만남 • 최동순 기자	63
「경복고」 48대 황일진 학생회장을 만나다 • 김서겸 기자	66
사랑해요! 선생님	69
「진주고」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안전부장 선생님과 인터뷰 • 김점자 기자	69
「동래고」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김현숙 선생님을 만나다 • 조광흠 기자	72
「원주고」 처음 뵈겠습니다. 원종호 수학선생님! • 박상숙 기자	75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79
「아현중」 나이 • 김선옥 기자	79
「경원중」 여름밤 • 민규리 기자	80
「춘천고」 고구마 • 김인옥 학생	81
「홍성고」 촌부의 딸 • 김배숙 기자	82
수필	83
「원주중」 친정엄마의 감나무 • 김순자 기자	83
「천안중앙고」 늦은 나이에든 꿈은 있다 • 장수원 학생	84
「원주고」 펜팔 • 최연오 학생	86

06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89
----------------------------	----

01

특별기고



다시 배움에 닿음, 펼쳐질 새로운 다음을 위하여 ----- 06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황은희 소장

아름다운 황혼의 청춘을 위하여 ----- 08

- 순천연향중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이만형 교장

만학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 ----- 10

- 동래고등학교 교장,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신창훈 교장

다시 배움에 닿음, 펼쳐질 새로운 다음을 위하여

황은희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딛었던 용기의 첫 걸음이 결실을 맺고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또는 졸업의 새로운 다음을 준비하며 벅차는 12월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학업에 도전하신 학생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2022년 한 해 1년 동안 값진 학교생활을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여러분의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은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분들의 꿈과 열정은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학업 뿐만 아니라 즐거운 학교생활의 추억을 만드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도 이러한 학생 여러분의 열의에 부응하고 보다 다양한 추억들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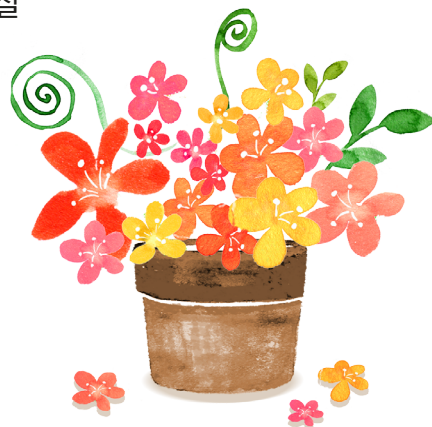
이번 하반기에는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과 시상식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작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예경연대회를 온라인 공모전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익숙치 않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분들의 다양한 재능과 온라인 시상식에서 화면 너머로 듣게 된 수상소감은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예전처럼 다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학예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발간된 뉴스레터 ‘U-반딧불’ 96호와 97호에는 정말 많은 학생기자 분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 66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어 각 학교 현장을 한눈에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학생기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과 기사 제보로 다양한 학교 소식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학업으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1년 임기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전국 51명의 학생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방송통신중학교가 10주년, 2024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배움의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 분들을 위해 곁에서 함께 헌신해 주신 교직원 분들, 학교를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교육 관계자 분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꿈을 가진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는 내년에도 다시 배움에 달음, 펼쳐질 새로운 다음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황혼의 청춘을 위하여

이 만 형 | 순천연향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장 이만형입니다.

학생 여러분 1년 동안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며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격주 주말마다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며 깨달음을 줍니다.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할 인사말을 부탁받고 어떤 말을 전할지 고심하던 중,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모습에 감동받던 제 마음을 담은 시를 한편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던 것처럼, 저의 이 짧은 시가 만학도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드리 단풍나무 사이로
붉고 노란 잎이 훑날리며 가을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배움의 열정을 느끼고
세월을 이겨내며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황혼의 청춘을 봅니다.

어린 나이 험한 세상 모르던,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 시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동생들 학비까지 감당했던 당신은
객지로 나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복에 책가방 둘러메고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학교 가고
영화관 드나드는 거리의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늦었지만 일평생 소망하던 책을 펼치는 당신
일요일임에도 늦잠도 마다하고 환한 미소로 신나게 등교하는 당신
졸업을 앞두고 단 하루 교복 입고 사진 촬영에 마냥 기뻐하는 당신
체육대회 줄다리기에 넘어지고 나뭇굴어도 웃으며 손뼉 치는 당신
책 속에 글씨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반추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

가방을 둘러멘 등갯길 힘찬 발걸음 속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발견하며
변명과 투정이 앞서는 젊은 학생들의 귀감이기에
당신의 황혼은 노년이 아닌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언제나 저는 여러분의 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학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

신 창 훈 | 동래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장 신창훈입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학의 길에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저의 인연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5년간 동래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었고,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특강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만난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제자의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50대 후반의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당시 신랑에게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이고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인 것이 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신랑 몰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국어시간에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이 쓴 시의 제목이 ‘산’이었습니다.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또 어느 산에 가야 하나...’ 그냥 보면 평범한 구절인데요. 사연을 듣고 나니 가슴이 찢해졌습니다. 사연인즉슨 2주에 한번씩 출석수업이 있는 일요일에는 신랑에게 산에 간다고 말하고 학교를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교해서 집에 돌아가면 신랑이 오늘 산행이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산행 얘기를 가짜로 지어내서 얘기해야 했던 거죠. 졸업식을 앞두고 신랑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신랑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새롭게 배움의 길에 나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배움이라는 선물이죠. 모쪼록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말고 배움의 길을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졸업이라는 큰 선물을 하십시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굳은 의지와 용기로 이겨내고 졸업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만학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영화 ‘역린’에 나왔던 중용 23장의 구절을 대신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길에 배어 나오고 길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 13

고마운 우리 학교 임원진 ---- 31

졸업사진을 찍어요! ----- 38

다채로운 순천연향중학교의 출석수업

채 송 화 |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화창한 날씨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오늘은 바로 우리 학교의 출석수업날입니다.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학습일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컬링 수업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컬링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컬링이라는 스포츠는 만학도 학우님들에겐 다소 생소한 운동일 것입니다. 생소한 모습이었지만, 학생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라며 궁금해하였습니다. 컬링은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획득하고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종목입니다. TV에서만 보았던 컬링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컬링은 얼음 위에서 하는 스포츠인데, 오늘은 저희가 쉽게 배워볼 수 있도록 체육 선생님께서 땅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컬링을 가져오셨습니다.

팀당 4명씩 짝을 이뤘고 돌의 색깔을 따라 노란 팀과 빨간 팀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경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학우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였습니다. 왼편 사진을 보면 노란 돌이 빨간 돌보다 중앙에 위치하였네요! 사진과는 다르게 노란 팀과



빨간 팀 모두 엎치락뒤치락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컬링을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낯설게만 느껴졌었는데, 즐겁고 쉽게 알려주시는 체육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게 컬링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저 사격 수업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은 무서운 흉기라고만 생각하고 스포츠 종목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수업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레이저 사격은 안전 수칙만 지키면, 정말 안전한 스포츠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반 권총으로 하는 사격과 사격감은 비슷한데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권총보다 레이저 총이 더욱 안전하고 즐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먼저 체육 선생님께서 설명과 함께 레이저 총을 다루는 방법과 사격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체육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사격 실력도 좋으시고 거침없이 총을

겨누셨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지만, 몇몇 학우님은 아직도 총이라는 이유로 무섭다며 머뭇머뭇하였습니다.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선생님께서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에 마음이 놓여 레이저 사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컬링과 레이저 총 두 종목 모두 이번 체육시간이 아니었으면, 쉽게 다뤄볼 수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운동도 배워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수학, 영어 등 교과 수업이 아닌, 이런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이 저희 학생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재미있는 출석수업일 모두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다채로운 출석수업일이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최 지 숙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선선한 가을 날씨가 맞이해주는 오늘은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출석수업일입니다.

학교로 등교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원동력! 행복한 점심시간의 모습을 기사로 담아보겠습니다. 4교시 땡! 점심시간 종이 울림과 동시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례대로 나가 식당으로 향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탓일까요? 배에서는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울리고,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배고픔이 가득해 보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감사하게도 출석수업일마다 영양사님이 점심시간에 맞춰 따뜻한 점심 식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영양사님의 음식 솜씨는 저희 학생들의 입맛에 정말 제격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가정주부인데, 영양사님의 음식 솜씨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전교생의 점심을 똑딱똑딱 만드는 영양사님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지켜주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급식 봉사단'입니다. 급식 봉사단은 학생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점심 식사도 미루고 안전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전교생이 물리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식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습니다. 매번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급식 봉사단’
학우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또 다른 행복입니다. 나이를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아들, 딸에게만 전해 들었던 급식을 학생이 되어 먹어볼 수 있다니! 감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학우님들과 마스크를 벗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안전 칸막이 사이로 보이는 학우님의 모습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함께 급식을 먹으며 우리는 더욱 끈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영양사님과 점심시간 안전한 배식을 위해 봉사하는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급식봉사단’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이상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학생기자 최지숙
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③

마음을 담은 선율

박 유 화 |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5월 15일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에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모니카 연주와 더불어 메시지 낭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반에는 하모니카 연주를 수준급으로 하시는 학우님이 계시는데요, 학우님이 오직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을 위하여 하모니카 연주를 준비해오셨습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니, 더욱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반 담임선생님도 하모니카 연주와 메시지 낭독이 감동적이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 울컥하였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학생 일동



등교를 한 후에

김 판 심 |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즐겁고 가슴 설레는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오늘은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기념하고 기록하기 위해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등교하던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 머리를 손질하고 반티를 예쁘게 다리고 등교를 준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독 설레는 등곳길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이 얼마 만 일까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만지지 않던 머리를 예쁘게 만지니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하루입니다.

원래는 교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사정상 교복을 미리 빌리지 못해 반티를 입고 졸업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웃고 떠들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부름에 맞춰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사진 작가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개별 사진과 단체 사진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포즈를 따로 연습한 것인지, 망설임 없이 개성 있는 각자의 포즈를 뽐내었습니다. 학우님들 대부분이 늦깎이 학우들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10대로 돌아간 듯 예뻐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고 오후 시간엔 1학년 교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학생기자로서 1학년 학생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으니 정말 중학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1학년 교실로 향하였습니다.

1학년 반장을 만나서 학생기자임을 설명하고 후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입학할 하여 소풍이나 현장체험 학습에 제약이 정말 컸었는데, 1학년 학우님들은 곧 소풍도 가고 현장체험학습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1학년 학우님들을 보니 제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후배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년 동안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멋진 고등학생으로서의 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모두 멋진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공부한 학우님들!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공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중학교 생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김판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첫 체험학습

심 예 린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중학교 인생 처음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자제되었던 체험학습이 올해는 거리 두기가 완화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2학년도에 남춘천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비롯하여 2학년과 3학년 모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체험학습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생 모두 이번 체험학습이 중학교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체험학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오늘! 남춘천중학교의 행복한 현장체험학습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춘천과 남이섬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춘천 시민들은 자주 남이섬을 여행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하니 자주 오던 남이섬도 새로운 여행지에 온 것처럼 행복하고 새로웠다고 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넓은 들판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예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사진이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고 큰 하트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트를 만들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1학년 학생들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2학년의 현장체험학습 모습입니다. 2학년의 현장체험학습 현장에는 2학년인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는 낙산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땐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처음 가는 소풍 길에 비가 내려 우울해하고 있을 찰나 이런 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이내 비는 그쳤습니다. 낙산사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학우들과 함께 도시락도 먹고 이곳저곳 방문하는 것도 좋았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선생님들 덕분이겠지요? 저희들의 첫 현장학습을 행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선배님들의 아쉬워지만 즐거웠던, 처음이자 마지막 현장체험학습 모습입니다. 3학년 선배님들은 인근 바닷가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에 선배님들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겠지요.

이제는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이 아니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안전상의 이유로 학년별로 다른 곳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꽃보다 예쁜 학우들과의 행복한 체험학습

최 공 주 |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은 꿈꿀 수 없었고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아쉽게 보내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체험 학습을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유독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학우님들이 많았는데 출석수업일이면 집에서 키우는 꽃을 사진으로 찍어와 자랑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인지 강원도립화목원으로 현장체험학습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현장체험학습 날이 밝았습니다. 학우들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유달리 학우들의 옷이 알록달록 예쁘게 보입니다.

화사한 옷을 꺼내 입은 춘천여자고등학교 학우들을 태운 버스는 강원도립화목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버스는 어느덧 화목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화목원에는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녹색으로 물오른 나무들 사이로 거닐다 보니 예쁜 꽃들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반기는 듯합니다.

화목원에서 가장 빛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꽃도 나무도 아닌 바로 우리 예쁜 학우님들이었습니다. 모여서 꽃반지도 만들고 하하 호호 웃으며 화목원이 떠나갈 듯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영락없는 여고생들이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우리 3학년 학우들을 위해 이렇게 멋진 곳을 데려가 주신 춘천 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유독 감사한 마음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꽃 하나에 행복해진 우리는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었습니다.

멋진 추억으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선생님들과 학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임원 비양도 환경 정화활동

이 정 희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받은 도움에 부응하고자,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총학생회 선배님들이 주최한 이 행사는 46기 총학생회 전 임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임원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지키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우리는 '비양도'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총학생회 전 임원들은 한림-비양도 선착장에 모여 다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임원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승선 준비를 위하여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잠깐의 기다림 이후 임원진은 모두 승선하였고, '비양도'로 향하였습니다.

수학여행도, 소풍도 아니었지만, 임원진들이 뭉쳐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도란도란 임원진 선·후배 동기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배는 '비양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간단히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환경 정화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양도 곳곳을 살펴 보니, 저희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매우 많아 보였습니다. 선착장 인근 바위에는 파도에 밀려 밧줄이 바위틈 사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밧줄을 제거하는 것은 무리일 정도로 꽂혀 있어서, 임직원 5명이 붙어 밧줄을 제거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그런지 어부들이 작업하다 미처 걷지 못하고 파도에 밀려온 찢긴 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물들도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 어느덧 준비해온 쓰레기 봉지는 꼭 차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은 고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함께 정화된 듯 깨끗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섬 비양도

조 순 오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지난주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다녀가신 비양도에 저희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후배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섬이라고 불리는 비양도는 현재
해양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등
학교 선배님들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도 해양 쓰레기
가 너무 많아 감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교 회장님, 총무님, 홍보부장님, 2학년
3반 학생들이 두 팔을 걷고 해양 쓰레기를 치우러 비양
도로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가서 보니 TV에서만 보던 해양 쓰레기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에 놀란 학우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쓰레기를 치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우님들이 치운 쓰레기들이 모여 쓰레기 봉지가 하나
두 개 쌓이고 쌓여 한 사람당 2봉지씩 들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힘을 모아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절반도 치우지 못하고 배 시간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왔습니다. 학우들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더 많은 학우님들과 함께 방문하자는 말을 하고 각자 집으로 해산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선배님들과 2학년 3반 학우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추진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 쓰레기는 결국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서지 않으면 쓰레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깨끗한 비양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활동 소개 9

전남여고 뜻 모아 한마당
구경 오세요!

김 순 례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곡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에 우리 전남여고의 축제인 ‘뜻 모아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뜻 모아 한마당’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축제로 그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뜻 모아 한마당’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학생기자로서 전남여고의 자랑인 ‘뜻 모아 한마당’을 열심히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뜻 모아 한마당’은 각 반별 학생들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교정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드디어 ‘뜻 모아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뜻 모아 한마당’에 어울림 마당으로 마음껏 즐겨보자고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창 시절을 아쉽게 보내고 3년 만에 맞이하는 행사이니만큼 3배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맛있는 교장선생님의 격려사입니다. 센스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의 축제, 우리의 축제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축제 속에서 즐거운 한마당이 되기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난타공연입니다. 쿵쿵 북을 치는 소리에 제 마음도 뱅 뱅 뛰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된 듯 몸짓을 맞춰 움직이는 학우님들입니다. 난타부 학생들은 난타가 취미활동이 될 정도로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취미생활을 찾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 사진은 판소리부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래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판소리부 학우님들은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로 예쁜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소리와 더불어 동작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학우님들입니다.



- ① 리허설하고있는 학생들 1
- ② 리허설하고있는 학생들 2
- ③ 교장선생님의 격려사
- ④ 난타 공연
- ⑤ 판소리반 공연





① 오카리나반 공연 ② 요가반 공연 ③ 노래반 공연
④ 레크레이션 시간 1 ⑤ 레크레이션 시간 2

다음은 오카리나반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황홀한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실력과 다름 없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연주해 주는 오카리나반 학우님들! 예쁜 선율 잘 들었습니다. 2번 사진은 요가반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몸이 가볍고 깃털같이 보입니다.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는 요가반 학우님들! 참 예뻐니다.

다음은 노래반입니다. 하모니의 어울림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도 노래반에 들어가면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저 무대 위에 노래반 학우님들과 함께 어울리는 상상을 해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동아리 공연을 마치고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 학년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을 도둑맞았다고 느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을 보상받은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긴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뜻 모아 한마당’은 저희에게 행복한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3일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뜻 모아 한마당’ 행사였습니다.

경기여자고등학교 회장단 선발의 날

김 이 순 |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출석수업일에 23기 회장단을 선발하였습니다.

평소 봉사활동과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 중 몇 명이 회장, 부회장 짝을 이뤄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후보로 등록하신 학우분들 모두 평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었기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 투표 당일까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투표소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 고민되었던 투표 끝에, 9월 18일 23기 회장단이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투표였기에, 개표를 하는 동안 후보자들 못지않게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장단은 항상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였는데, 23기 회장단도 당선 후 첫 활동으로 22기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장단 뒤를 이어 교문 앞에서 교통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23기 회장단과 함께 교문 앞 교통정리 봉사에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새롭게 선발된 회장단과 함께하니 더욱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더욱 완화되어 수학 여행과 축제 등 굵직한 학교 행사들이 전면 정상화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기 회장단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기 회장단의 공약 중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우 전 학년이 즐길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있었는데,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내년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어울림 한마당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23기 회장단 여러분! 당선을 정말 축하드리며, 내년 경기여고를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학생기자 김이순이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임원진 선발의 날

정 윤 화 |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자율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생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차기 회장과 부회장, 선도부장, 정보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등을 선발 하기 위해 공약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제물포고등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한 사람씩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떨리는 기색도 없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약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공약이 이행되면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모두 꿈꾸는 학교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임원진도 다수 뽑아,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모두 각 학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은 제물포고등학교의 차기 임원진인데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니 내년 제물포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후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즐겁고 보람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임원진 여러분 모두 파이팅 !!



반짝반짝 빛나는 천안중앙고등학교 총학생회

김진옥 |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은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023년 32회 추억 졸업앨범’을 찍는 날입니다.

졸업사진은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각 2컷씩 촬영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출석수업일에 많은 학우님
들이 자차를 이용하여 학교로 등교하시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이 운동장에 주차를 하여
운동장 사용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운동장에서의 졸업사진이 예정되어 있었
기에, 학우들의 원만한 사진촬영을 위해 총학생회
임원진들이 나섰습니다. 등교 시간 보다 이른 시간인

데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임원진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교통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 당연한 듯 봉사
하시는 학우님들!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임원진 여러분! 덕분에 졸업앨범을 수월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학생기자 김진옥이었습니다.



행복한 2학기를 위하여 ‘춘천고등학교 임원회의’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기 시작을 맞이하여 춘천고등학교 임원회의가 최종택 교무부장 선생님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하반기 학교 학사 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즐기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었습니다. 회의는 교내 상록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학기를 잘 이끌어내겠다는 임원진들의 열정은 넓은 상록실을 꽉 채웠습니다.

우선 다음 등교일인 10월 23일 2학기 중간고사와 10월 30일 열리는 교내 체육대회 겸 한마음 단합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었습니다. 중간고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원해 주어 응원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회의를 통해 임원진들에게 전달하였고, 진행을 위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 치러지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단합대회는 오전 체육행사와 더불어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교내 행사를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체육대회와 교내 행사에 벌써부터 전교생의 기대감으로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 임원진은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 선출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학우 여러분, 저희 뒤를 이어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최동순 기자였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어요! ①

졸업 앨범사진

유 정 숙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가을바람 스치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입학하고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졸업 앨범을 찍는 날, 학생들은 예쁘게 단장하고 졸업사진을 찍을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졸업 앨범을 찍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아는지 교복을 미리 대여하여 준비해 주셨답니다. 사진은 유명한 포토 그래퍼님이 재능기부로 수고해 주신다고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만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쁜 졸업 앨범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학교는 특별하게 졸업사진에 3학년 예비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얼굴이 들어갑니다. 전 학년의 얼굴이 졸업 앨범에 들어가니 앨범이 더 풍성해지고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였던 선·후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1학년과 2학년이 단체 사진을 찍었고, 그 후에 3학년이 개별 사진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학우들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틈을 타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며 단장을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썹도 그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분도 바르는 모습을 보니 새색시 시집가는 설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친구들끼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학우들 모두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교복 반납 시간이 되자 아쉬워하며 마지막 한 컷을 남기는 학우님들! 모두 행복한 얼굴입니다.

평생 아쉬움을 간직하고 살아온 설움 같던 배움의 길. 교복을 입으니 정말 졸업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모든

학우님들은 이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복이 가득했던 오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화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 앨범사진 촬영하던 날

김 이 안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오늘은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내내 날씨가 좋다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히 비도 잘 참아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교복을 입지 않지만, 졸업사진을 기념하여 교복을 대여하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니 영락없는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았습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발을 대고 있으니, 어린 시절 꿈꾸던 학창생활의 로망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저희 반 단체사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 쪽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살피주셨습니다.

저희 반은 대부분이 여학생이며 2명의 남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기 부끄럽다고 했던 남학생들도 막상 카메라 앞에 있으니 당당하게 포즈를 취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 모두 교복이 잘 어울립니다.





졸업사진을 다 찍고 교복을 벗기 아쉬웠던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업 시간에도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들으니 왜인지 모르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겠지요? 교복 한번 입어보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의 교복은 이제 마지막이겠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또 다른 교복과의 추억이 생길 것이라고 위로하며 우리는 다시 교복을 벗고 입고 온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정도 많이 생기고 돈독해진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강릉중학교에서 김이안이었습니다.



22학번 졸업사진

김진옥 |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은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출석수업일이자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여느 고등학교 졸업생과 다를 바 없이, 학생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으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많은 고민을 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내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TV 광고처럼 내 또래 학생들이 정말 많을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첫 발걸음은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둔 지금 배우지 못한 한을 풀게 해준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졸업사진을 찍는 두 눈에 감사함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졸업사진은 단체사진과 개인사진 등 여러 컷으로 나눠 찍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할 땐 절로 나왔던 미소가 개인사진을 찍으려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진작가님이 준비해주신 꽃과 책을 들고 어색함을 달래보는 학우님들! 점점 표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내 어색함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의 미소를 지어보는 학우님들! 모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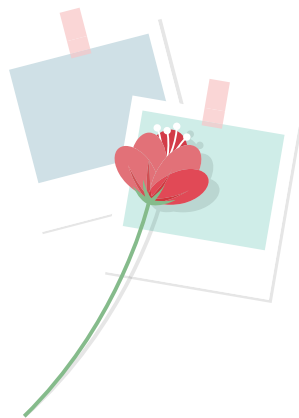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우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했고,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얼굴을 마스크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욱 생기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 일부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까지 진학하시려고 도전하는 학우님들을 보면 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대학 입학 준비하는 학우님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학우님들도 모두 원하시는 바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행복한 학생기자 김진옥이었습니다.



03

방송중 · 고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 44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 50

여름밤

정 채 심 |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대상

문예(시)

창문 사이로 살포시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민들레 씨앗
건너 마을 개울가에서 왔어요

개울가 찰랑거리는 물결에
비친 나뭇가지 흔들흔들
춤추며 노래 부르네

새파란 개울둑엔
자전거 술술 지나 개구리 친구라네
물에 둥둥 떠 있는 소년 꽃 노란 저고리
파란 치마 입고 넘실넘실

앞산 실안개 산허리를 두르고 노닐다가
실눈 뜨고 들성들성 수줍은 듯 바라본다



수상소감

우선,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시' 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모두 담아 쓴 시였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워 학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용기를 내서 저와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층에서 바라본 거리

최 지 숙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문예(수필)

아침마다 새롭다. 통유리 가득 이웃들의 함박 미소가 채워지는 공간에서 아침을 시작한다는 건 매일 새로운 꽃이 피는 것과도 같은 기분이다. 통유리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날마다 새 책을 접하는 독서와도 같다. 하루 3시간의 자원봉사는 도서관 한 쪽의 유리를 통해 마을 입구에 놓인 팔각정 정자의 하루를 엿보기도 한다.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재미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풍경화다.

아침 9시에 창문들을 있는 대로 다 열어젖히고 바깥공기와 닫혀 있던 안공기를 서로 뒤섞어 공 중부양을 시킨 다음 나는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이어폰 음악에 맞춰 즐거운 발 유희를 시작한다.

책상 정리가 끝나고 전날 통계까지 끝나면 마을 작은 도서관은 잠시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마시 면서 통유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속에 시간을 가져다준다.

날마다 믹스커피 향기에 빠져 지나가는 사람들 을 보며 멍 때리는 이 시간이 여름 녹음이 짙은

나뭇잎 사이로 맑고 영롱한 아침 이슬 같은 사색을 불러오기도 한다. 내가 매일 앉아 세상과 소통 하는 이 자리는 통유리 가득 아름드리나무가 정 자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 곁을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 봄처럼 여름처럼 이파리들이 싱그럽다.

정자의 하루는 나이 지긋한 어른신들의 자리가 되었다가 어떤 날은 정자 지붕 위로 새들의 안 식처가 되기도 한다. 정자는 동네방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식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다. 햇빛이 짹짹한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빨간 우산 하나가 지나간다. 마치 우산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안엔 허리가 기억 자로 굽은 노인의 모습이 지팡이와 함께 드러나 나도 모르게 “쉬었다 가자” 정자에 걸터 앉아보는데 숨소리마저 힘뚫을 바람은 아는지 바람결에 철렁한 여음 바지는 펄렁거린다. “어딜 가시는 걸까, 힘들지 않게 다녀오시기를”



또 도서관 이층에서 보이는 골목길은 집집마다 꽃 뜨락이다. 골목 첫 집은 봄부터 담벼락을 꽃의 여왕 장미 넝쿨로 채우고 채워 5월과 6월까지 행복을 전하는 꽃무더기 세상을 만들어 준다. 꽃향기가 진한 장미는 코로는 모자라 눈과 입마저 장미에게 훌쩍 빠져 옆에 있는 그녀들의 귀까지 즐겁게 만들어주는 유행가 ‘사월과 오월의 장미’ 노래를 저절로 흥얼거리게 하는 마법마저도 부리게 만들어준다.

장미의 계절이 지난 이 집에 담벼락은 7월과 8월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주홍의 물결로 벽돌집을 갤러리로 가득 메워 주기도 한다. 위에서 바라보는 나만 주홍색에 빠진 게 아니었나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사진을 찍는다. 능소화의 화려한 자태에 연신 찰칵 찰칵 핸드폰 사진 찍기는 어제, 오늘도 이어진다.

벽을 타고 스르르 떨어지는 꽃송이들은 떨어질 때조차 사람들의 시선과 심장을 멈추게 한다.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송이 통째로 떨어지는 과감함마저 아름다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 저 집의 주인은 꽃처럼 어여쁜 말씨를 분명코 지녔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 집주인을 동경해 보기도 한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보는 주위의 모습들은 나와 도서관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 준다. 유난히 덥기도 한 올여름, 내리는 여름비를 보면서 오늘도 나는 온통 유리창 너머로 커피향으로 채우며 사람들의 일상의 꽃의 날들을 수채화처럼, 유리창에 비처럼 커피 내음처럼 흘러 내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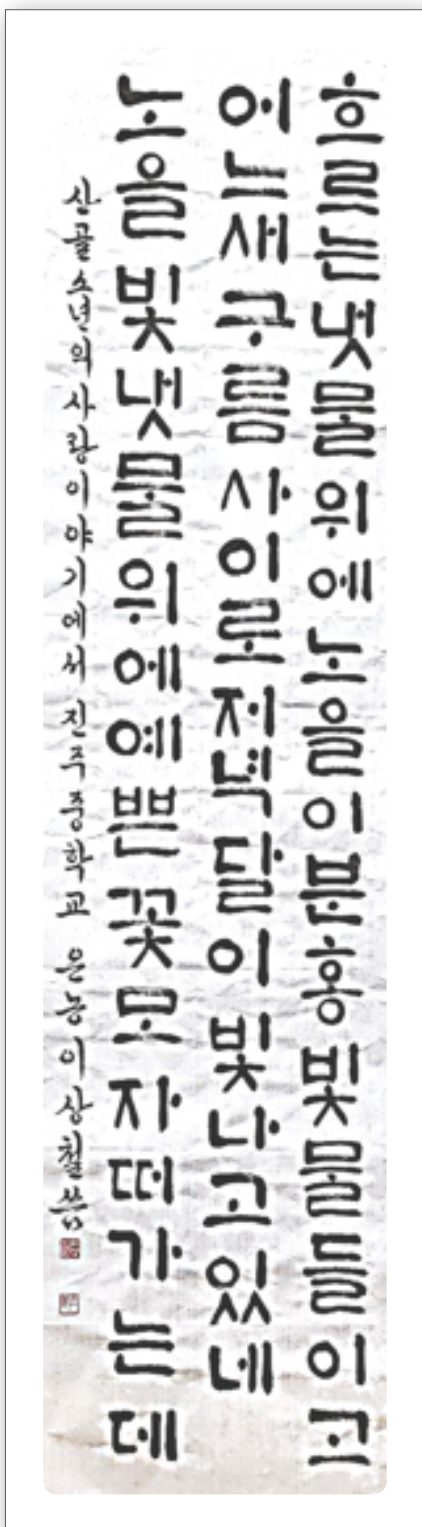


수상소감

꿈을 꾸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예(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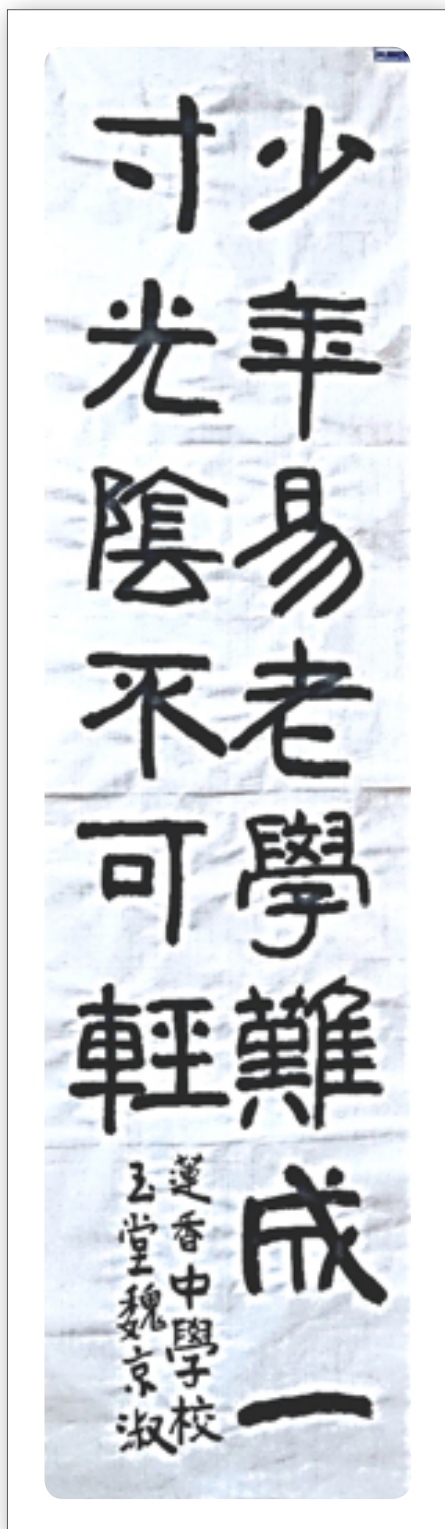
수상소감

먼저 평소 서예 수업을 지도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품 출품을 배려해 주신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한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글 서예를 시작한 이유는 한글 궁체의 아름다운 선에 반해서였습니다. 흰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번지고 붉게 찍힌 도장의 신비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예(한문)



수상소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한문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주위 친구들이 용기를 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학업에 대해 욕심이 많았는데, 방송통신중학교를 통해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주었고, 아이들처럼 꿈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박 소 희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회화(수채화)



수상소감

갑자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놀랍고, 떨리며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꽤 잘 그렸지만 바쁜 삶 속에서 붓을 잡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싶은 소망, 늘 잊을 수가 없었던 제 꿈을 손녀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물어두었습니다. 그런 제게 기회가 왔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밤

신 용 순 | 구미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문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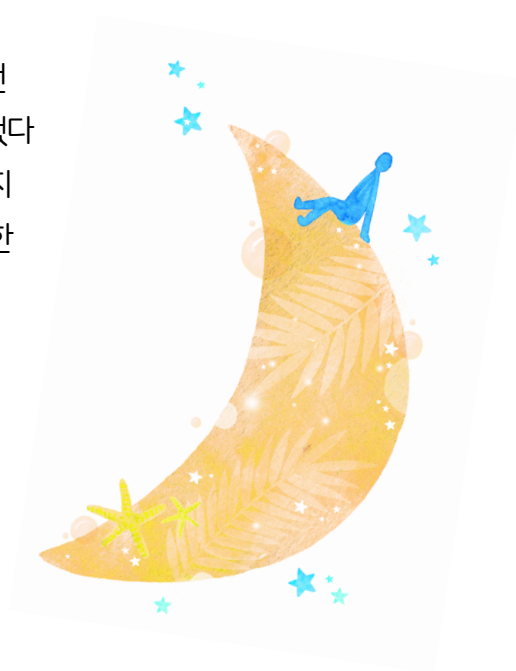
이글거리던 태양
날이 저물어
산마루에 걸리고
노을은 붉은
립스틱처럼 곱다
여름밤의 꿈

낮엔 태양을 등에
힘겹게 업고
소금꽃 피운 하루
미소가 가득

여름밤 시작되면
달빛에 가득
할머니 사랑 애인다
옥수수 물고 하모니카에 웃던
할머니 무릎 부채질은 시원했다
얼마나 귀한, 뜨거운 사랑인지
가슴 뜨겁고 차마 드리지 못한
애잔한 사랑

할머니의 고우신 모습
달빛으로 가득한 여름밤

이젠 추억으로 만나는
가슴 속 할머니
지금 저 별이 되셨을까
여름밤은 풀벌레 소리에 묻혀 지나간다.



수상소감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배워가는 고마운 곳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며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좋은 상 주신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밤

정 옥 님 | 목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문예(수필)

“덥다 더워.” 여기저기 외치는 여름의 소리, 무더위 폭폭, 찜통더위이다.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동안 코로나로 연기해 온 식사 모임에 갔다가 서둘러 가게로 와보니 아뿔싸! 문이 굳게 내려져 있다. 남편과의 약속했던 시간에 딱 맞추느라 서둘러 왔는데 무슨 일인지 분명 별말 없었는데 전화를 해봤다. 일행과 함께 오느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며 지금은 시원한 밤바다에 낚싯대 드리우고 두 발을 담그고 있단다.

나 대신 온종일 일하느라 더위에 지친 그 심정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가게 마무리 짓고 나니 한밤중. 내일도 시험인데 걱정이 앞선다. 믿었던 남편에게 한 방 제대로 맞은 섭섭함이 어이가 없다.

늦은 밤 퇴근하여 집으로 갔다. 어머님께서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하고 나서 샤워하는 나를 애타게 부르셨다. 대충 닦고 나와 도와드렸는데 날 보고 다시 와보라 하신다.

“아범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아들을 찾는 모습이 귀여우시다.

꼭 아빠 찾는 아이처럼 날마다 보는 아들 그렇게 보고 싶으실까?

밤낚시 갔다고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
“어머님, 아범은 거래처 배달 갔어요.”
고개 끄덕 끄덕

“오냐 알았다.” 하시며 빙그레 웃는다.

한참 후

“아가 이리 와볼래?”

내 손에 무언가를 쥐여 주셨다.

‘월까?’

“너 학교 다닌다면서.. 이걸로 공책이랑 연필 사거라. 오늘 시험 봤다며? 공부 열심히 잘해라, 옥님아!”

“네” 대답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웃음

이 났다. 펴보니

네 번 접은

5만원이었다.



젖은 내 머리에 번개가 쳤다. 부모로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꼭 들어보고 싶었던 그 말 뜻 밖이다. 치매 약 드시는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난생처음 듣는 언어이다.

‘어머님 정신이 맑으신가 보다.’

허리를 굽혀 “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꼭 연필 이랑 공책 사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한마디 덧붙이셨다.

“오냐 다음 달에도, 그다음 달에도 또 줄게. 나도 못 배운 것이 서러우니 옥님아 너라도 많이 배우 거라.”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신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이런 놀라운 사연을 큰 딸에게 알리니 “엄마 내가 낮에 할머니 찾아갔어요. 엄마 학교 다닌다는 말과 오늘 시험 본다고 했지요.” 웃으며 할머니께서는 여태껏 몰랐다고 하시네요.” 딸과 함께 한바탕 킁킁대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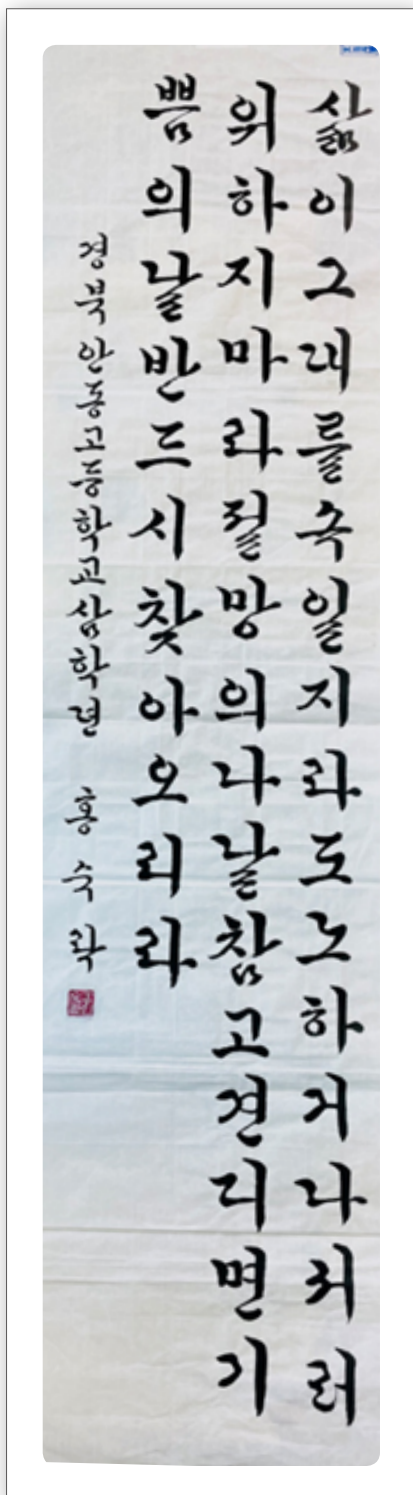
수상소감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이 된 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일인데, 부족한 저에게 이 상은 놀랍고 벅찬 영광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의 친구와 선배, 후배, 목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예(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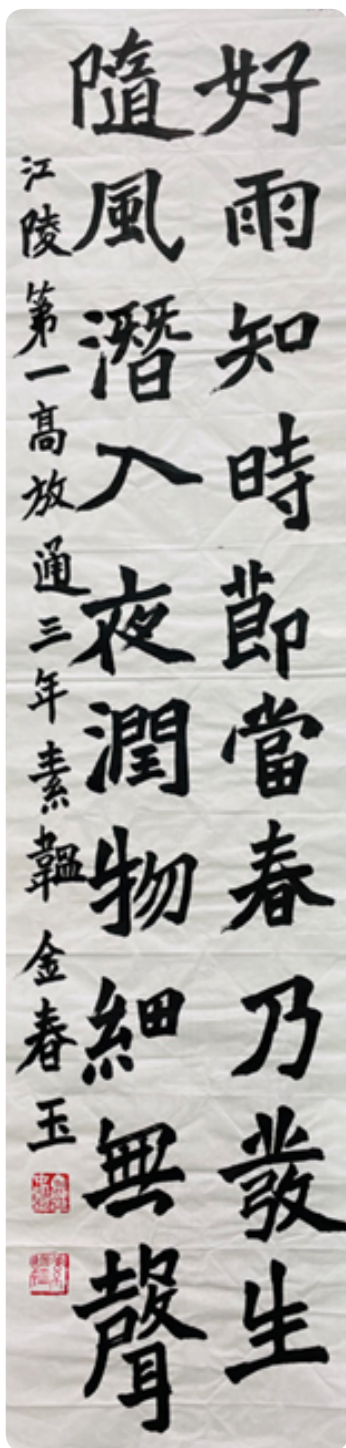
수상소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란 평생 소원을 풀어준 곳입니다.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던 저에게 소원도 풀어주고 행복한 상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의 배움의 꿈을 지지해 준 큰 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대상

서예(한문)



수상소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휴일인데 저희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저희를 가르쳐주려 기꺼이 학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며, 든든한 지지를 해준 가족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박 소 윤 |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회화(수채화)



수상소감

작품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크나큰 상을 주신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우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학예경연대회 부문에 출마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학교 선후배와 직장동료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많이 부러웠었는데, 그 한을 풀어준 방송통신고등학교 너무 감사합니다.

김 정 화 | 포항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화(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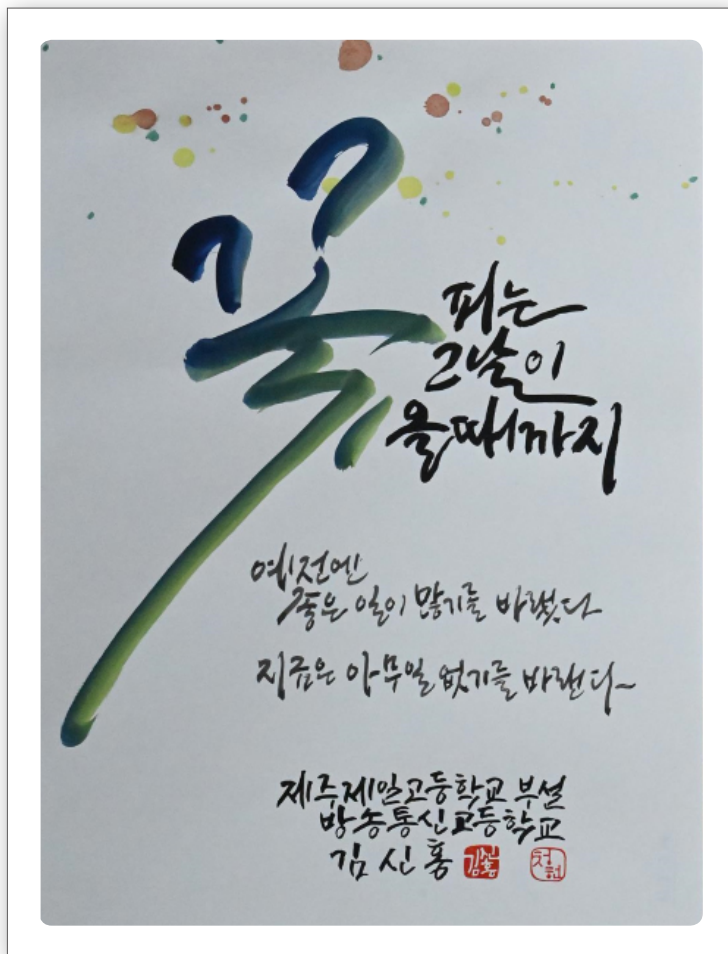


수상소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란 인생의 터닝포인트인데,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캘리그래피



수상소감

요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

너무 얼떨떨해서 지금도 실감이 안 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여 년간 서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그래피를 만났고, 글자는 글자인데 자유로운 획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캘리그래피를 열심히 그렸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어쩌면 저에게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 생활이 된 캘리그래피를 통해 좋은 성적을 받아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4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59

감사합니다! 선생님 ----- 69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부부 인터뷰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① - 이문한, 한정옥 학우

안녕하세요! 온 들녘에 황금물결 출렁이고 이 밭 저 밭에 참새 때를 쫓느라 밀짚모자를 쓴 허수아비 자태가 정겨운 계절입니다. 정겨운 이 계절에 오늘은 유난히 금슬이 좋은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부부 학우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두 학우님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이문한입니다. 저는 저희 반에서 실장으로 당선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한정옥입니다.

기자 두 분께서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었는지요?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8·15 해방 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시골 국민학교마저 전쟁으로 불타 가건물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50리를 걸어가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현실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늘 허기진 배움의

욕망을 품고 살아오던 중 아내가 지인으로 부터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배움에 도전해 보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진학하였고 이어서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저도 남편과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 배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중학교 교육을 시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도 배우지 못했다는 한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감히 배움의 한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방송통신중학교를 알려주었고, 어머니 한과 저의 한을 풀고자 남편을 설득해 나란히 입학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입학하기 전, 어머니는 저세상으로 소풍을 떠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시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두 분의 사연을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함께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결혼 후 아내와 살아오면서 직장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로 떨어져 살아온 시간이 많았는데, 학교에 함께 다니면서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시험공부도 하면서 아내와 정말 많이 친해지고 더욱 금슬이 좋아졌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이 하나로 움직이니 좋습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남편과 서로 대화가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며 정답을 찾다 보니 부부가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가정생활이 저절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우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휴일에 쉬지도 않고 저희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고생 많은 담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학도는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배움이 본업이기 보다 배움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체험하고 취미생활처럼 학창 시절을 즐기고픈 마음이라 생각되어 더 폭넓은 교양 과목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저도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 대부분은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를 인지하시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 두 분께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꿈을 이루셨나요?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유·소·청년기에 함께 즐기고 도우며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이 시기에 젊은 학창 시절을 꿈꾸는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오래도록 같이 배우고 즐기며 영원한 우정을 맺고 싶습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지난날 꿈 많은 여고생들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제 가슴속 소녀의 마음을 소환해 보며 저도 이제는 여고생이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에 지금의 이 여고생 신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자 앞으로 방송중·고에 입학할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학생 남편 이문한 학우 :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배움이고, 이 세상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한정옥 학우 :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처음엔 중학교가 목표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또다시 대학까지 꿈꾸며



배움에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숨 한번 크게 고르고 용기 내어 도전해 보세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속에서 몽실몽실 무지개가 피어올라 눈부신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엇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학생 **학생 남편 이문한** : 나에게 방송고는 햇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열시 당하고 황혼의 언덕 위에서 더듬더듬 살아가야 할 순간 어디선가 반짝반짝 서광이 비치듯 환하게 비춰오는 햇불 방송고. 나에게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햇불입니다.

아내 한정옥 : 나에게 방송고는 영원한 종합비타민입니다. 한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누려보고 싶었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학우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배우는 과정이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허기진 배움의 영원한 종합비타민이 되어 주눅 들어 살던 마음을 무지갯빛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스승님의 고귀하고 빛나는 가르침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자 두 분 바쁘실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문한, 한정옥 두 학우님께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 다른 학우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을 걷고 계신 두 분의 앞날에 눈부신 꽃길이 펼쳐지시길 바라오며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한, 한정옥 학우님



강원도대표 골퍼 박그린 학우와의 만남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② - 박그린 학우

2022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강릉 메일플비치 CC에서 실시한 강원도지사배 고등학교 골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박그린 학우를 만나러 갑니다.

기자 박그린 학우님 안녕하세요. 이번 강원도지사배 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박그린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기사를 제보해 주신다고 하시니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언제부터 골프를 시작하셨나요?

학생 2019년 가을부터 골프를 시작하였고, 매력을 느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는 성과를 내어 고등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 골프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며 학생으로서 공부와 골프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학생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니까 두 가지를 모두 해내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에 매진하지 않으니, 두 가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자 정규 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올해 전학하였는데 그 이유라도
있을까요?

학생 네, 골프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많은
대회의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이다 보니,
두 가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른 새벽과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
으며 공부하고 낮에 운동 연습 시간을 늘려
배울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학생 정규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원할 때 언제나
공부할 수 있으므로 공부시간을 늘려 자유
자재로 계획표를 만들어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고, 운동 연습 시간 또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연습을 하면서 공부와 골프 모두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강원도 대표 골퍼로서의
자부심과 꿈이 있다면?

학생 골퍼선수로서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학교와
강원의 아들로서 긍지를 지키고 개인의
발전과 프로골퍼로서 꿈을 실현시키며
모든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할 수 있다면요?

학생 제게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둠 속에 빛과 희망을 주는 배움의 산실이며 음식에 알맞은 간을 맞추어야 맛이 있듯이 마음대로 시간을 내어 공부와 운동 모두를 알맞게 맞추어 주는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요?

학생 바람이라기보다 일요일도 마다않고 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과 특히 배인매 담임선생님께 고맙고 감사하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며 그분들께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항상 위로와 격려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문을 두드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자 오랜 시간 대화에 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박그린 학우가 소원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강원도 대표를 떠나 전국 대표와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원하는 장래 프로골퍼로서 명성이 길이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U-반딧불’ 뉴스레터 최동순 기자였습니다.

박그린 학우님



48대

황일진 학생회장을 만나다

김 서 겹 |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③ - 황일진 학생회장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2023학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을 새롭게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후보들이 몰려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치열한 선거 끝에 당선된 총학생회장 황일진 학우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학생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2학년 6반 황일진이라고 합니다.

기자 48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수많은 후보들이 몰려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약을 통해 학생들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2년 동안 몸 담으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래 5가지와 같은 공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언제나 학우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2. 동아리 회장님들과 협업하고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 위주의 학생회 활동이 아닌 신입생도 함께 하며 모든 학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완하는 만남의 장을 개최하겠습니다.
5. 다른 방송통신고등학교 임원들과 교류하며 얻은 좋은 제도를 통해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자 황일진 학생회장님의 공약을 보면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꿈꾸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총학생회장을 꿈꾸게 된 이유는 47대 학생회장님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우들 한 명 한 명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살폈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젠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으니 47대 학생회장님 뒤를 이어 늦은 나이지만 배움의 꿈을 위해 큰 용기를 낸 학우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기자 학생회장님의 당찬 포부!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학생회장님이 생각하는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저는 우리 학교의 장점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학우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학교의 풍경보다 예쁜 학교는 없다고 합니다. 또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학생 대부분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정말 많고, 교통이 좋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오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은 배움의 기쁨을 함께하는 선배 그리고 후배,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점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통
그리고 풍경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최고 학년으로
진급하시는데요.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 매 순간 원서를 낼 때의 마음가짐으로 임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학교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요?

학생 수직적인 관계의 직장 생활과는 다르게 학
교는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이
가 많은 적든 우리는 같은 학생이기 때문
입니다.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북고
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기자 인상 깊은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과 경북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を 희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배움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글을
보는 예비 학생 여러분! 지금이 가장 공부
하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기자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학교 학생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일진 학생회장



진주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안전부장 선생님과의 인터뷰

김 점 자 |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① - 이상현 선생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8월 21일 여름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늘 감사한 선생님들과 보고 싶은 학우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등교한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학생안전부장 선생님을 오늘도 학교 교문 앞에서 뵈 수 있었습니다. 기자인 저는 학생안전부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선생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안전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기자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선생님 지난날의 추억이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대학은 가고 싶고,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이 부담이었던 저는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를 입학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국립대 사범대학에 입학하였고,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봉사활동으로 야학 교사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제 적성에 맞는 일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저희 같은 늦깎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려움은 딱히 없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를 두 번째 하는데, 수업은 9년째, 3학년 담임은 6년째 맡고 있습니다. 오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분들 분위기도 파악되고 특히 교재에 얽매이지 않는 수업 방식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반 학교 수업보다 더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어려움이 딱히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추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초임 교사 시절인 1991년 여름방학 때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있어, 우리 반 학생들 모두 데리고 삼천포 신수도에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추억을

쌓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3년 전 당시 연세가 86세(1933년생)인 학생분이 한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셔서 입학 준비를 도와드렸는데,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하여 한문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기자 선생님께서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으셨군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란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사회에 나가 좋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싶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봄날의 햇살'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선생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학생안전부장 이상현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김현숙 선생님을 만나다

조 광 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② - 김현숙 선생님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동래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신 김현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김현숙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담임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기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 문득 선생님의 어릴 적 꿈이 궁금해서, 첫 질문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 교사이셨을까요? 아니었다면 어떤 꿈을 꾸면서 자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부끄럽지만 어렸을 적엔 시인을 꿈꿨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처음 본 책이 박목월 시인의 ‘산새 알 물새 알’이라는 동시집이었습니다. 평범한 언어가 아름다운 시로 탄생하는 데 매료되어 시를 쓰다 보니, 상도 여러 개 받고 부모님과 오빠가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시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도 글을 쓰다 보니, 시인이 멋

있게 느껴져 장래 희망을 조사할 때면 ‘문학가’ 또는 ‘시인’을 쓰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순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형제 3명이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한 국립대를 선택하였고, 그중에도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라는 꿈을 놓지 못하고 국어 교사로 생활하면서 시를 쓰면 되겠지 싶었는데, 재능이 부족해 시인은 못되고 국어 교사만 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의 꿈이 시인이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시집은 내지 않으셨어도 늘 시를 읽고 시를 가르치시니, 어릴 적 꿈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사범대에 진학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사범대에 진학한 것은 가족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교사이셨는데,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셔서 저에게 권하셨고, 취업시장에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겐 큰 이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빨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교직에 오랫동안 봉직하시면서 본교 학생들과 만학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일컫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를 공교육과 교권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마치 학교가 내신 성적을 받는 도구가 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교 공부에 대한 미련으로 자발적으로 만학도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수업 태도가 더 진지해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장 때 만난 타 지역 방송통신중학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받은 상처를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치유받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자 학교 공부가 절실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한
만학도들의 태도가 선생님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충명한 어린 학생들과 비교하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우려가 되었는데,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연로한 분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낭만을 즐기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
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자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U-반딧불’
학생기자 조광흠이었습니다.

김현숙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원종호 수학선생님!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랑해요! 선생님 ③ - 원종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계절은 어느새 초겨울 문턱에 와있네요. 오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수학’ 과목을 재미있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올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처음 발령받으신 분이신데요. 학생기자인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굉장히 떨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원종호 수학선생님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원종호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발령받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수업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도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멋있고
부러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교직생활을
꿈꾸게 되셨나요? 계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에게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의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반에서 1등하는 친구는 수학을 어렵게 설명하는데

너는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서 너한테 질문하러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느꼈고, 가장 중요한 수능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사범대학에 입학하였고 교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방송통신고등학교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워낙 특색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 꼽기 어렵습니다. 우선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박상숙 학우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굳이 한 학생을 뽑자면 저희 3학년 3반의 반장인 김태우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기 초에 첫 만남 때부터 지켜보면서 느꼈지만 정말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교과서를 배부할 때, 점심시간 도시락 배부할 때, 소풍날 짐 옮길 때, 학급 운영에 있어 일 손이 필요할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나서서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학교생활만큼 사회에서의 삶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과 제자로 만났지만 학생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 저도 기억에 남는 학생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들으니, 학생기자 역할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같이 늦깎이 학생들처럼 선생님께서도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저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면서부터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요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 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그런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배워 관련 자격증을 따보고 싶습니다.

기자 선생님이 요리를 좋아하셨다니 정말 생각하지 못한 취미입니다. 선생님의 요리를 한 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맡으면서 선배 교사들이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해보니,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며 새삼 놀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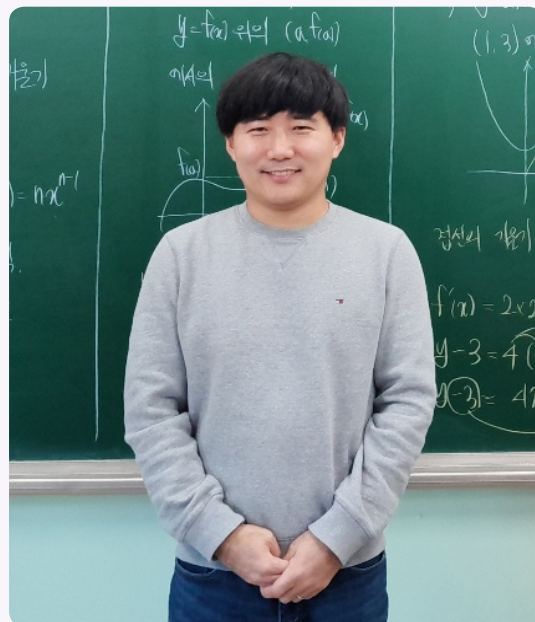
제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업에 집중하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분들을 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선생님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신규 발령입니다. 신규 발령을 받을 땐 정말 가슴 뛰고 설레는 일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규 발령을 받은 것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원종호 수학선생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께서 칠판 가득 수학공식을 풀어주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데 비해 저희가 혹 따라가지 못하진 않는지 죄송하고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3학년 3반 저희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원종호 선생님



05

우리들의 이야기



시 ----- 79

수필 ----- 83

나이

김 선 옥 |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나이 들이 좋다
생각이 넓어지고
내 시간이 있으니 좋다

나이 들이 좋다
욕심이 작아지고
적게 가져도 좋다

나이 들이 좋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바쁜 것이 없으니 좋다



여름밤

민 규 리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어둠이 살포시 내려앉은 도시의 밤
소낙비가 쏟아지려나 보다
하늘이 까맣게 솟덩이 되었네

순간 빠르게 내리쬰는
번개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어딘가에 맞닿는 소리를 낸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
달아오른 도시의 건물이
비에 젖어 먼지를 털어낸다

산책길에 우연히 만난 노오란
금계국이 단비에 미소로
화답한다

비는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요란한 소리로 내게
노크한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꿈속에 빠져든다



고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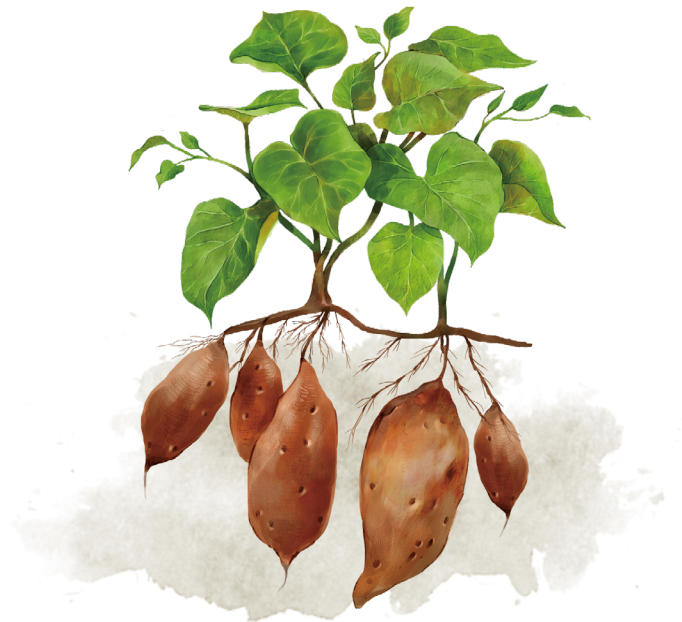
김 인 옥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참
토실, 토실
많이도 달렸구나!

한여름
천둥소리
되약별 이겨낸
땀방울들이 주렁주렁

적막한
어둠 속에서
어쩌면 이리 곱게 자랐을까

거북등 같은
농부의 손등을 흠쳐낸 그 맛
꿀보다 더 달콤하고 향기롭구나



김 배 숙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석양빛

초경 치르듯 빨개질 때면

양계장 호야 등 커시는 아버지

사래 긴 목정발 이랑에 앉아 나물 캐다

몸빼 끝 어둠 묻히며 돌아오는 어머니

장날이면 봄나물 이고 지고

북새통에 새벽 별도 서성서성

달걀 팔아 전대 구멍 뚫릴 때까지 마신 술

난전에서 월사금 마련하는 어머니

아버지 권주가 소리에 초승달 눈 깜빡이고

벚틀에 앉아 가난 또 짜고 짜는 어머니

허물어진 흙담에 기대어

푸른 꿈 꾸는 소녀 있었지

잔별 머리 위 내릴 때까지



친정엄마의 감나무

김 순 자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엄마 집엔 감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친정집 가까이 사는 우리 칠 남매가 감을 딴다. 감을 따는 날이면 고기도 구워 먹고 잔칫집 분위기다. 긴 사다리, 짧은 사다리, 바구니, 박스 등 감 따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6-7명이 감을 따기 시작하면 수많은 감을 다 따는데 4시간은 족히 걸린다. 하하 호호 웃어가며 서로 자기가 딴 감이 예쁘다고 우겨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감을 따는 핑계를 대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날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칠 남매이다. 엄마를 포함하면 여덟 집, 한 집당 적어도 300개의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들었다. 올해도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하하호호 웃으며 꽃감을 만들 계획이었다.

지난주 동생들과 감을 따기로 해서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이 노랑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감이 사라졌다. 친정엄마가 정성 들여 가꾸어온 감나무의 감은 다 어디로 갔을까? 동생들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들에게 두 박스씩 나누어 주시

면서 좋아하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지난 봄 오월 중순에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시고, 8일 만에 엄마도 아버지를 따라 영영 떠나셨다. 부모님이 떠난 슬픔이 다가시기도 전에 감도 다 사라져 버렸다. 엄마와의 추억을 돌아볼 감나무가 낙엽과 함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사라졌다.

엄마의 빈 집이 더 쓸쓸해 보인다. 우리 남매가 자주 들러서 집안의 온기를 불어 넣어야겠다.



늦은 나이에든 꿈은 있다

장 수 원 |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여느 가장과 다를 것 없이 나는 가족과 풍족하게 살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택시사업을 운영하였다. 아산에서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하며 재미있게 생활했던 나는 손님 한 분 한 분 태우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던 택시기사였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단란하게 살던 중, 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다. 날짜도 생생한 1998년 2월 15일 여느 때와 같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 트럭에 택시가 밀려 끔찍한 사고를 당해 장파열로 장을 절단하였다.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결국 왼쪽 다리는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수술하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다.

처음에는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간병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달리 먹고 혹독하게 재활훈련을 진행했고 땀과 눈물에 얼굴이 다 젖을 때까지 노력한 결과 어색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된 나는 두 번째 도전을 하였다. 공단에서 경비를 구한다기에 접수하였고, 운이 좋게 합격하여 10년간 근무하였다. 경비일이 다리가 불편한 나에게는 쉽지만은 많은 도전이었지만, 좋은 인연도 만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은퇴 이후 나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TV에서 천안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뒹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배움에 아쉬움이 있던지도 몰랐던 치열했던 삶이었지만, 은퇴 이후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하였고, 방송통신중학교를 거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 학생기자로 3년 동안 활동하며 전국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였다.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방송중·고 입학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선례를 보고 도전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가장 높은 학년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졸업하면 네 번째 도전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늦은 나이에든 꿈이 있기 때문에.

펜팔

최연오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내 나이 스물두 살 때 파월 장병 위문편지로 인연이 되어 펜팔을 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파월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얼른 주소를 따서 어린 소녀처럼 국군 아저씨 머나먼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위문편지를 보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 하는데 월남에서 편지가 왔다.

국군 아저씨한테서 나에게 답장이 온 것이다. 답장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너무 반갑고 놀라서 가슴이 막 뛰었다. 일단 진정하고 봉투를 뜯어보았다. 첫눈에 띄는 건 하얀 종이에 연두색 펜 글씨. 그런데 너무 잘 쓴 글씨... 내 마음이 그냥 빠져들었다.

한편 나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초등학생인 것처럼 “국군 아저씨 답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 또 답장이 왔다. 그러면서 보내고 받고 하는 동안 진실을 털어 놓고 글로는 아주 정이 들었다.

얼마 후 그 쪽에서 사진이 왔다.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이지만 정말 잘 생겼고 군복 입은 모습이 멋있게 보였다. 내 눈에 콩깍지가 낀 것이다. 자세히 알고 보니 나이는 나보다 세 살 많고 강원도 사람이란다. 그쪽에서도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마음에 든단다.

1년의 복무 기간을 마치면 귀국할 거라고 하더니 6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만날 날만 기다렸는데 6개월 연장이 되었으니 6개월을 더 군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한다. 편지로 보고 싶은 사연들이 오고 가면서 월남의 풍경 사진도 보내고 나는 고향의 소식을 열심히 전했다.

일기를 쓰듯 날마다 쓰고 보내고 편지가 오고 가고 아무리 답장을 빨리 해도 한 달은 걸리니 그냥 써서 보내면 월남에서도 편지가 온다. 어느덧 귀국을 하게 되어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동안 사진으로 보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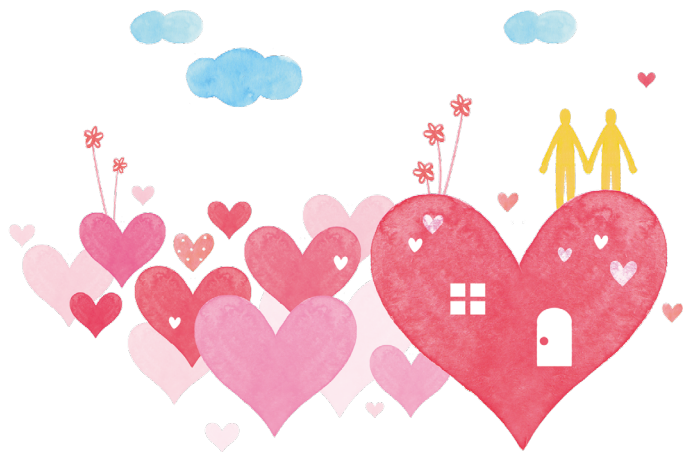
막상 실물을 대하고 보니 실망스러웠다. 얼굴은 새카맣고 삐쩍 말라 눈이 움푹 들어간 모습이 상상 속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떡하지? 계속 만나야 하나? 그만 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강원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심란한 내 표정을 보고 언니가 물었다. "몰라. 나 안 만날래" 하고 대답도 안 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편지가 왔다. 보고 싶다고 서울에 오겠다고 한다.

나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다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월남에서 15일을 배를 타고 오면서 배멀미에 죽을 고생을 했단다. 귀국해서 남은 3개월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늦은 나이에 제대도 했으니 하시며 양쪽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서두르셨다.

그해 겨울 그 사람은 스물일곱, 나는 스물넷, 우리는 결혼을 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지금 51년째 국가 유공자로 나라의 혜택도 받으면서 펜팔로 맺어진 인연이 부부가 되어 지금까지 평탄하게 50년 넘게 살았으니 괜찮은 인연인 것 같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부로 맺어지면 천생연분이라고. 그럼 나도 부부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나이 75세 방송통신중학교를 거쳐 고3학생이 되어 뒤돌아보니 펜팔로 맺어진 남편을 만나 예쁜 등지를 틀고 우리 가족이 희로애락을 느끼며 알콩달콩 살아왔던 세상살이만큼이나 즐겁고 보람 있는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지금 나의 행복지수는 파란 하늘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뭉게구름의 여정을 닮은 듯 온통 무지갯빛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06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 89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소식1

2022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전국 66개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을 7월 4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운영하였고, 지난 10월 15일(토)(방송통신중학교), 10월 23일(일)(방송통신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유튜브(YouTube)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2022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22년도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에는 방송통신중학교 5개 경연 부문(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과 방송통신고등학교 7개 경연 부문(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캘리그래피)에 총 4,88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온라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419명이 본선에 출품하여 우수작 총 200명(방송통신중학교 86명, 방송통신고등학교 114명)에 대해 대상(교육부장관상), 특별상(시·도교육감상), 금·은·동·장려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 등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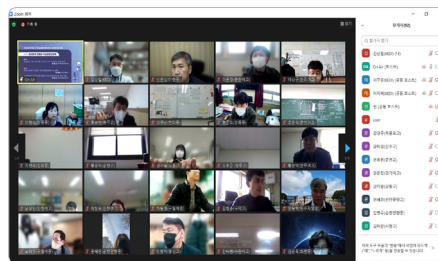
이번 시상식에는 오프닝 공연, 학교별 경연 스케치 영상 감상 등과 함께 각 부문별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자와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수상 소감을 들어보는 등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유튜브 조회수(2022.11.17.일자 기준)가 방송통신중학교 8,694회, 방송통신고등학교 6,118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소식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 고운영센터에서는 11월 25일 (금)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포럼은 미래교육 변화와 학습경험인정제,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기준 개선 방안 탐색, 유관기관(국가교육평생진흥원) 세션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및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근거 및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유관 기관 운영 제도 소개 및 학습경험인정제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포럼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전국 방송중 24개교 및 방송고 42개교 교원을 포함하여 총 135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YouTube 채널(<https://youtu.be/cu9QZLOVles>)에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소식3

2022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종합상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11월 28일(월) 한국 긍정심리감정전문가협회 설치원 강사를 초빙하여 방송중·고 종합상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에는 방송중·고운영센터 종합상담 업무 담당자 14명이 참석하여 종합상담 업무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이해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소진 대처 방안 모색과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점검 및 완화를 통한 긍정적 감정 회복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상담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U-반딧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022

VOL. 97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순천연향중 채송화 기자, 광주북성중 최지숙 기자,
대전봉명중 박유화 기자, 광명중 김판심 기자, 남춘천중 심예린 기자,
제주제일중 조순오 기자, 주성중 유정숙 기자, 강릉중 김이안 기자,
아현중 김선옥 기자, 경원중 민규리 기자, 원주중 김순자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춘천여자고등학교 최공주 기자, 제주제일고 이정희 기자,
전남여고 김순례 기자, 경기여고 김이순 기자, 제물포고 정윤화 기자,
천안중앙고 김진옥 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동래고 조광흠 기자,
원주고 박상숙 기자, 경북고 김서겸 기자,
진주고 김점자 기자, 홍성고 김배숙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경원중 정채심 학생, 진주중 이상철 학생,
순천연향중 위경숙 학생, 강릉중 박소희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구미고 신용순 학생, 목포고 정옥님 학생, 안동고 홍숙락 학생,
강릉제일고 김춘옥 학생, 경남여고 박소윤 학생, 포항고 김정화 학생,
제주제일고 김신희 학생, 춘천고 김인옥 학생,
천안중앙고 장수원 학생, 원주고 최연오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편 집 장 김경애(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편집총괄 황은희(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편 집 인 김수진, 이윤지(이상 방송중·고운영센터 기획·홍보팀)

1년 동안 기사를 게재해주신 모든
2022학년도 방송중·고 51명 학생기자과 재학생 분들,
수고해 주신 방송중·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